



순환매 진행되며 혼조 마감

BOJ 기준금리 25bp 인상

외국인·기관 코스피 순매수, 코스닥 순매도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8,726.60pt (+2.11%)	1,018.68pt (-1.48%)	1,391.74pt (+2.31%)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509.80 원 (-5.4 원)	4.1100% (-0.8bp)	7,623.75pt (-0.04%)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1,847 억	+7,841 억	+682 억
외국인	+15,329 억	-3,189 억	+1,413 억
기관	+7,055 억	-4,629 억	-2,102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업종간 순환매가 진행되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소부장과 피지컬 AI 관련주가 하락한 반면, 상대적 약세였던 금융, 방산, 건설 업종이 반등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와 소비재 유형은 강세를 이어가며 코스피지수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오늘 BOJ는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내년 4월부터 국채 매입 축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던 만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가운데 투자자들은 장 종료 후 진행될 기자회견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KOSPI는 2.11% 올랐고, KOSDAQ은 1.48% 내렸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39.4조원, KOSDAQ은 약 9.0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1.5조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기계/장비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KOSPI에서 7천억원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금융과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해외 방산업체와의 협력 소식과 중동 수출 기대감에 방산주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발전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하면서 국내 풍력 관련주가 반등했습니다. 매출 증가 전망에 백화점 업종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단기 모멘텀 둔화되며 피지컬 AI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씨에스윈드(+29.83%),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18.58%), 신세계(+8.79%)가 올랐고, HPSP(-20.6%), 레인보우로보틱스(-6.67%), 현대차(-1.08%)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